

# 여성범죄의 현황과 대책방안

## Present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of Female Crime

김경태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Kyung-Tae Kim(policekim@woosuk.ac.kr)

### 요약

여성범죄는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년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으로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여성범죄 | 피해자 |

### Abstract

Due to the growth of female movement after 1970s' and the resultant interest in female activity changed the type and degree of female crime and thus led to considerable interest and research. As a result, the relative difference between crime rates of sexes has been reduced, but the crime of male and female has been considerably decreased owing to sex role and concept of self-ego, more generally speaking, the result of female movement.

As countermeasure for the recently increasing female crime, this research presents first, enhancement of social education; second, arrangement of relevant institutions; third, activation of the system of female investigator; fourth, the necessity of victimology approach.

■ keyword : | Female Crime | Victim |

## I. 서론

일반적으로 말해 여성범죄성에 관한 연구는 종래, 범죄학 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등한시되어 온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여성범죄의 공표 통계에 나타난 비율이 남성 범죄에 비교해 극히 낮다는 사실에 의한 것인지도 모르고, 여성이 현대처럼 사회적 진출을 해오지 않았다는 현실에 의한 것인지도 모른다[1].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성장과 그로 인한 여성활동에 대한 관심은 여성범죄의 유형과 정도를 변화시켰고, 이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별간 범죄율의 그 상대적인 격차는 줄었으나 절대적인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남녀간 범죄성의 간격은 변화하는 여성의 성역할과 자아개념,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운동의 결과로 상당히 좁혀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해방과 더불어 여성이 직업세계로 뛰어들게 되고 따라서 횡령과 같이 직업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범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 자신이 스스로를 단순히 여성근로자라만 생각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남성에 의해서만 행해지던 것으로 생각되었던 행위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여성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젊은 여성일수록 더욱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① 체포된 범죄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② 기타 범죄보다 강력범죄로 체포된 여성의 증가가 더욱 더 높고, ③ 강력범죄로 체포된 여성의 증가율이 여성의 재산범죄참여에 의한 것이라는 등으로 여성범죄가 남성범죄와 닮아가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범죄인에 대한 수사과 처벌 그리고 재할과 관련하여 있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보호기관 당국은 대체로 남성 범죄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범죄인보다는 남성범죄인의 수가 많고 그래서 시민의 관심은 남성범죄인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여성범죄가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과 이들 여성범죄인의 처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

본 연구에서는 여성범죄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첫째, 여성범죄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둘째, 여성범죄의 현황에서는 여성범죄자의 현황, 범죄유형별 인원, 주요죄명별 인원, 여성범죄자의 특징별(연령별, 교육정도별, 생활환경 및 결혼관계별)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여성범죄의 개념과 특징

### 1. 여성범죄의 개념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성향, 사회생활의 역할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외향성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끊임없이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이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내향적이며 변화보다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모험심이 적고, 현 위치에 안주하며, 사회질서에 비교적 잘 순응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격 특성에 의하여 여성들은 남성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으며 특히 범죄유형 가운데 대인적, 공격적, 폭력적인 범죄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한다.

실제 남성과 여성의 범죄율을 비교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여성범죄율이 남성범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여성범죄율은 특정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각국의 여성범죄율은 남성의 10% 내지 20%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범죄율이 남성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 명료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여성의 낮은 범죄율을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일부에서는 여성 특유의 사회화 과정을 강조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여성이란 자녀양육을 사명으로 하기 때문에 인내와 헌신의 심리적 성향이 생기고, 수동적인 성격이 되기 때문에 범죄와 같은 모험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시도할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 후자의 입장은 어려서부터 여성은 자신들의 역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사회의 보호 아래 형성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낮다는 것이다[3].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범죄의 과정이 좌우되기도 하며, 대표적인 변수에 따라 법률위반의 모습과 유형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범죄와 관계되는 많은 매개변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변수중의 하나가 남녀의 성별일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우선 신체 구조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점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정신적인

면에서나 행동 면에서 독특한 많은 차이점들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은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서 남성들과는 다른 여성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학습을 받기 때문에 남성들과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의 성별에 대한 차이가 과연 범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 여성범죄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여성범죄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면, 여성범죄라 해서 그 어떤 특별한 학문적이고 법률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형법이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서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뿐이다.

## 2. 여성범죄의 특징

여성범죄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폐된 범죄성일 것이다. 여성이 주로 범하는 범죄의 유형이 가시적이지 않아서 인지되기가 힘들고 여성범죄자가 자신을 은폐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우발적이거나 상황적 범죄이며, 배후에서의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4].

첫 번째, 여성범죄의 양적 특징으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약하고 강한 힘을 요하는 범죄행위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있으며, 여성의 수동적 태도, 피보호적 지위가 사회적 접촉하는 기회를 제한하고, 남성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육아를 기르는데 인내와 헌신에 강하다는 점이 있으며,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사회, 경제적 활동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범죄를 범할 기회가 남성에 비하여 적고, 여성에 대하여 사회가 일반적으로 관대하므로 기소, 재판이 남성보다 약하게 이루어진다[5].

양적으로 보면 여성범죄의 비율은 남성의 10-20%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10년간 남녀의 범죄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범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 내외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범죄통계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현저한 비율차이에 대하여 회의하는 입장

도 있지만, 여성범죄가 양적으로 적은 것에 대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여성들은 대체로 공격적인 경향보다는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특히 강제력을 수반한 범죄를 하기 어렵지 않고, 사회가 여성에게 주입시킨 여성의 성역할 때문에 사회활동이 적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범죄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들이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범죄 비율은 적었지만, 70년대 이후 여성권익의 성장이나 경제발전 등에 따른 사회규모의 확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두 번째, 여성범죄의 질적 특징으로는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에 비해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수동적 성향의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보통 범죄의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범죄의 원인제공을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방조하거나 돕는 경우가 남성에 비하여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범죄는 반사회적 성격도 약하고 동기와 수단의 측면에서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여성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숨은 범죄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남성에 비해 폭이 좁고 대개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의 선입견도 개입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낙태, 유기죄 등이 남성에 비해 많고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명예에 관한 죄, 간통 등이 상대적으로 많다. 강도, 폭행, 살인 등의 폭력범죄나 강력범죄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 III. 여성범죄의 현황

우리나라 전체범죄중 여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15% 내외를 점유하여 왔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죄 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6].

### 1. 여성범죄자의 현황

[표 1]은 지난 10년간의 전체 여성범죄자 수와 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1996년에 288,200명이던 여성범죄자수는 2005년에는 308,443명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7.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증감을 보면 1997년, 2000년, 2002년과 2005년을 제외하고는 19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전년대비 24,584명, 7.2%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IMF구제금융 관리체제하의 경제난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2000년에는 전년대비 35,562명, 9.8% 감소하였으나 그후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도 전년대비 13,881명, 4.0% 증가하였고, 2004년에도 전년대비 17,644명,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전년대비 65,440명, 17.5%가 감소하였다.

여성범죄자가 전체 여성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여성인구 1,000명당 13.0명으로 서 전년 대비 2.7% 감소하였다.

표 1. 여성범죄자 현황[6]

년도	남 성	여 성		
		인 원	여자비	인구비
1996	1,634,349	288,200	15.0%	12.8%
1997	1,708,247	278,007	14.0%	12.2%
1998	1,857,461	339,104	15.4%	14.7%
1999	1,943,136	363,688	15.8%	15.7%
2000	2,241,653	328,126	14.6%	13.9%
2001	1,641,225	344,755	14.9%	14.4%
2002	1,954,692	342,338	14.9%	14.0%
2003	1,727,684	356,219	17.1%	15.0%
2004	1,792,583	373,883	16.4%	15.7%
2005	1,965,571	308,443	15.7%	13.0%

### 2. 범죄유형별 인원

최근 10년간의 여성 형법범의 범죄유형별 인원은 [표 2]와 같다. 1996년에는 134,883명이 발생하였다가 1997년에는 120,607명으로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다. 1998년에는 143,011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고, 1999년에도 전년 대비 5.8% 증가한 151,277명이 발생하였으나, 2000년에는 122,459명으로 전년 대비 19.0% 감소하였다. 2001년에는 다시 전년 대비 0.5%

증가한 123,177명이 발생하였고, 2002년에도 127,230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150,027명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04년까지 이어져 전년 대비 5.5% 증가한 158,299명이 발생하였으나, 2005년에는 128,093명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하였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2005년에는 재산범죄가 88,257명으로 68.9%, 강력범죄가 11,613명으로 9.1%, 풍속범죄가 8,965명으로 7.0%, 위조범죄가 6,919명으로 5.4%를 나타내어 위 네 유형의 범죄가 전체의 90.4%에 이르고 있다.

1996년과 2005년을 비교하여 볼 때 위조범죄가 3,781명 120.5%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강력범죄가 2,793명, 31.7% 증가를 보인 반면, 풍속범죄는 4,157명, 31.7% 감소했고, 재산범죄가 12,914명, 12.8% 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산범죄는 증감을 반복한 뒤 2001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 들어 다시 감소하였고, 강력범죄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풍속범죄는 2001년까지는 대체로 증가 추세가 계속되다가 그 뒤로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위조범죄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여성 형법범 범죄유형별 인원[6]

범죄유형 년도	계	범죄유형별					
		재산범	강력범	위조범	풍속범	과실범	기 타
1996	134,883 (100)	101,171 (75.0)	8,820 (6.5)	3,138 (2.3)	13,122 (9.7)	690 (0.5)	7,942 (5.9)
1997	120,607 (100)	88,401 (73.3)	8,397 (7.0)	3,210 (2.7)	11,978 (9.9)	666 (0.6)	7,955 (6.6)
1998	143,011 (100)	107,959 (75.5)	10,037 (7.0)	3,635 (2.5)	12,517 (8.8)	575 (0.4)	8,288 (5.8)
1999	151,277 (100)	107,613 (71.1)	12,568 (8.3)	4,555 (3.0)	13,976 (9.2)	727 (0.5)	11,838 (7.8)
2000	122,459 (100)	78,027 (63.7)	13,602 (11.1)	4,021 (3.3)	14,827 (12.1)	784 (0.6)	11,198 (9.2)
2001	123,177 (100)	77,515 (62.9)	13,799 (11.2)	3,985 (3.2)	15,588 (12.6)	774 (0.6)	11,516 (9.3)
2002	127,230 (100)	84,460 (66.4)	12,485 (9.8)	3,969 (3.1)	14,587 (11.5)	744 (0.6)	10,985 (8.6)
2003	150,027 (100)	108,380 (72.2)	13,917 (9.3)	4,032 (2.7)	11,609 (7.7)	721 (0.5)	11,368 (7.6)
2004	158,299 (100)	117,483 (74.2)	12,163 (7.7)	5,630 (3.6)	10,846 (6.9)	726 (0.5)	11,451 (7.2)
2005	128,093 (100)	88,257 (68.9)	11,613 (9.1)	6,919 (5.4)	8,965 (7.0)	679 (0.5)	11,660 (9.1)

### 3. 주요죄명별 인원

[표 3]은 2005년 여성범죄자의 주요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를 2004년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죄명별로 보면 사기가 72,834명(23.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폭력행위처벌법위반 43,727명(14.2%)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30,095명(9.8%), 절도 8,709명(2.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과 비교하여 보면, 모든 죄명에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감소율이 큰 죄명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사기 28.0%, 식품위생법위반이 27.6%, 도박·복표가 17.8%, 간통이 15.0%, 4%, 횡령이 11.2%로 각 감소하였다. 그 밖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9.2%, 상해가 7.2%, 배임이 6.9%, 폭력행위처벌법위반이 6.5%, 절도가 4.2%로 각 감소하였다.

표 3. 여성범죄자 주요죄명별 인원 및 구성비[6]

구분 죄명	2004년 인원	2005년 인원		전년대비 증감율(%)
		인원	구성비(%)	
계	373,883	356,219	100%	-17.5
사기	101,109	92,418	23.6	-28.0
절도	9,091	9,086	2.8	-4.2
간통	4,059	4,468	1.1	-15.0
상해	7,384	8,712	2.2	-7.2
횡령	4,627	4,238	1.3	-11.2
배임	1,489	1,412	0.4	-6.9
도박·복표	6,603	6,998	1.8	-17.8
폭력행위처벌법	46,759	54,238	14.2	-6.5
식품위생법	11,630	12,280	2.7	-27.6
교통사고특례법	33,145	33,158	9.8	-9.2
기타	147,987	129,211	40.0	-16.6

### 4. 여성범죄자의 특징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징을 보면, 2005년의 경우 41세 이상 50세 이하가 94,888명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인원을 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36세 이상 40세 이하가 13.9%, 31세 이상 35세 이하와 51세 이상 60세 이하가 각 11.0%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범죄자의 교육정도별 특징을 보면, 2005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자의 비율이 34.6%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이상 학력자는 12.4%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범죄자의 생활환경별 특징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생활정도는 하류가 45.9%, 중류가 22.7%, 상류가 0.8%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4년과 비슷하나, 하류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결혼관계를 보면 2005년의 경우 기혼자가 83.5%, 미혼자가 16.5%로 2004년에 비해 기혼자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반면, 미혼자의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 IV. 여성범죄의 대책방안

종래 범죄 연구는 남성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따라서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되 기보다는 범죄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행해져 오고 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음도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데는 점차적인 여성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측면에서의 남성화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7].

우리나라는 여성범죄가 남성의 범죄에 비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으나 1984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범 죄 중 기회적 범 죄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백화점과 같은 진열된 상품을 보고 죄의식 없이 절취하게 되는 절도범이 가장 많다. 최근의 핵가족 시대에서 무분별한 외래문물의 도입, 지나친 이기주의의 발생 등은 물질만능주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질을 가져왔으며, 특히 여성들은 가사나 자녀를 돌보는 일이 소홀하게 되고 부부간의 애정의 결핍은 이혼, 탈선 등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여성범죄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8].

#### 1. 사회교육의 강화

사회교육은 형식적인 학교교육 이외에 비형식적인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의 대상, 연령, 장소, 시간,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 어떠한 규정이나 제도를 벗어나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성인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포함한다.

여성의 발전과 인간회복에 직결되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교육의 부족은 무지로 인한 여성범죄의 증가 원인 중 일부가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교육은 여성의 발전과 인간회복에 직결되는 요소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 일생을 통한 교육의 관점에서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9].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가치관, 태도, 윤리적 행위, 사회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또는 규범, 대인관계의 절차와 방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케 함은 여성의 사회화 진출에 크게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여성범죄는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가정주부의 여유시간의 적절치 못한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적 틀과 정보의 공급 및 교육 그리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형태의 기술교육 등이 충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범죄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 2. 관련제도의 정비

모자가정과 미혼모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모자가정의 경우 가장 크게 직면하는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과 아동양육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자가 스스로 가정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이 요구된다[10].

첫째, 보호 모자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조와 직업알선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모자원에 입소시켜 일정 기간 동안 사회적 능력과 자립기반 확립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각종 상담과 아울러 생활지도나 생업지도를 행하는 관계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셋째, 지금까지의 민간차원의 영세적인 서비스 내용에서 탈피하여 정부의 과감한 지원의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보호시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미혼모와 그

자녀를 위한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그들이 범죄로 유인되는 통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미혼모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미혼모 상담소 개설, 탁아소 설립, 직업교육의 활성화, 성교육의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1].

## 3.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지식정보와 사회와 고학력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고급여성인력이 증가하고 성평등사상이 확산되어 여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사회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 문제는 여성들만의 이익옹호나 남녀간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인권존중의 민주사회·자유사회로 나아가는 국가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12].

이러한 현실 하에서 각 수사기관에서는 여성고급인력을 양성하여 현대의 수사 인력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21세기 선진수사기관으로 변화 되어야 한다[13]. 현재 경찰 및 검찰 등의 수사실무의 입장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사건 수사의 경우에 특히 여성범죄자 및 여성피해자에 대한 조사·수사를 여성사와 여성검찰관 및 여경에 전담시킴으로써 이들 여성들이 남성 수사관 앞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충원인력의 20-30%를 여경으로 선발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전체경찰관 중 4.6%인 여경의 비율을 2014년까지 10%로 향상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여경 진출이 낮은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배치를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치안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승진심사시 총경·경정은 여성 승진대상 인원의 30%, 경감은 10%, 경위 이하는 승진대상 인원의 비율에 따라 여경에게 별도로 승진인원을 배정하여 2014년 이내 여경의 계급별 점유율에 있어 남자 경찰관과 평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14]. 그리고 검찰도 최근에 들어와 검사직을 지

망하는 여성 사법연수원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강력범죄 및 특수범죄 수사, 특수여성밀수사건의 경우에 전담 여성수사관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이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체범죄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여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원활한 수사를 위해 여성수사관만으로 구성된 전담수사반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범죄자의 인권보호와 진술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4.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

여성범죄 대책을 논의하면서 시각을 피해자학적 관점에 두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여성범죄자는 범죄자이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인 것이다. 즉 여성범죄자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다[15]. 즉 여성범죄자 중에는 범죄피해자였던 자가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여성강력범죄자 중에 그러한 경향은 현저하다. 실제로 1990년 미국 교정학회의 여성수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여성의 반 이상이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였고 36%가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중 소녀들의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경향이 심하다. 물론 남성도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후 범죄자가 된 경우도 있으나 여성범죄자에 비해 훨씬 낮은 형편이라고 한다[16]. 이러한 연구보고는 피해를 입은 여성이 범죄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범죄를 피해자학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는 것은 여성범죄의 대책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련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피해자학인데 피해자 측 사정이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제공되거나 피해자가 범죄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유형화함으로써 범죄대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17]. 피해자화의 유형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1차 피해자화, 제2차 피해자화, 제3차 피해자화로 범주화할 수 있

다. 제1차 피해자화는 개인이나 집단이 범죄 또는 위법행위 등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을 말하고, 제2차 피해자화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규범에 의해 확립된 사법절차에 따른 공적 범죄 통제기관 또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하며, 제3차 피해자화는 제2차 피해자화와 마찬가지로 범죄 통제기관이나 형사 사법체계의 만족치 못한 대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8].

여성범죄의 경우에도 여성의 이러한 피해자화 과정을 고찰한다면 여성범죄의 원인규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범죄자가 범죄실행 이전 피해를 받았던 상황의 분석과 검토를 통해 피해자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을 유형화하고 그 제거를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면 여성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규명과 효율적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본다 [19].

## V. 결론

과거 우리나라의 여성의 지위는 봉건적인 유교사상에 의해 가부장중심의 가족제도 하에서 가장의 절대적 권한 밑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닐 수 없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하게 된 계기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산업화의 발달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향상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범죄 비율은 적었지만, 70년대 이후 여성권익의 성장이나 경제발전에 따른 사회규모의 확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자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다.

종래 범죄 연구는 남성에 의한 범죄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여성범죄에 대해서는 남성경험을 그대로 적용해 오고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라서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되기보다는 범죄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행해져 오고 있던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음도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와서 여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연구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데는 점차적인 여성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측면에서의 남성화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범죄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범죄의 현황에서는 우리나라 전체범죄 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죄,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여성범죄의 대책 부분에서는 첫째, 사회교육의 강화, 둘째, 관련제도의 정비, 셋째,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넷째,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여성범죄에 제대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하고 여성범죄의 원인과 동기를 유발케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사후에는 여성수사관 제도의 활성화 등 형사사법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피해자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1] 김용준, *범죄학*, 교학사, 2005.  
 [2]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3]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4]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2.  
 [5] 이보영, “여성범죄의 추이 및 특징과 그 대책”, *교정*, pp.21-24, 1995.  
 [6]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p.124, p.126, p.127, 2006.  
 [7] 장중식,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 *교정연구*, 제 25호, pp.133-160, 2004.  
 [8] 정한식, *여성범죄의 증가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9] 홍영화, *한국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0] 노혜정,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1] 홍영화, *한국 여성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12] 박주문, “여자경찰관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2호, pp.123-162, 2001.  
 [13] *법률신문* 제3045호, 2002(1/24).  
 [14]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5.  
 [15] 齊藤靜敬, *刑事政策の諸問題*, 創成社, 1987.  
 [16] 심영희,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의 특성 : 여성학적 관점에서”, 제8회 한국교정교회사업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1993.  
 [17] 宮澤浩一, “被害者學の現況”, *被害者學研究*, 創刊號, 日本被害者學會, 1992.  
 [18] 박상열, 김상돈, *범죄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6.  
 [19] 이준걸, “여성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9호, pp.127-154, 1999.

**저자 소개**

김 경 태(Kyung-Tae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04년 8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 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지역사회 경찰활동, 범죄예방